



2006. 9. 8

(사) 한국종축개량협회



개회사(조병대 회장)

한국종축개량협회(회장 조병대)는 지난 9월8일 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한우농가 200여명이 자리한 가운데 2006년 한우종축생산농가 기술교육을 개최 하였다.

이번 교육은 한국종축개량협회가 처음으로 농림부로부터 한우 전문번식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여 정부로부터 교육비의 일부를 지원받아 실시하게 된 것으로 한우개량기법, 번식효율증진기술, 농가관리프로그램교육, 계획교배 방법 등을 주제로 하여 교육이 진행되었다.

이날 조병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한우개량시스템이 후대검정을 필한 수소위주의 개량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이제는 암소개량을 병행하여 개량해야 하는데 그 주역은 여러분과 같이 개량에 열정이 많은 번식농가라고 말하고 앞으로는 한우 암소검정을 통한 유전능력평가와 계획교배로 우량송아지를 생산하여 개량을 극대화해야 한다” 고 하였다.

특히 “이번 교육은 본회가 2년여 동안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한우농가관리프로그램을 번식농가의 번식 및 생산능력 기록을 전산화하여 암소선발과 계획교배에 유용하게 활용하여 농가의 생산성 향상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고 밝혔다.

이날 첫 교육은 “소의 번식효율 증진방안” 이란 주제로 축산연구소 백광수 박사가 강연해 주었으며, 농가에서 번식우관리에 좀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준다면 보이지 않는 경영상의 손실을 경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한 번식우 집단을 육성해 나갈 수 있다며 현장 경험을 살려 농가가 생각하



백광수 박사의 교육



서강석 박사의 교육

지 못했던 관리상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사진과 함께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두 번째 교육은 “한우개량기법”에 대하여 축산연구소 서강석 박사의 강연이 있었다. 서강석 박사는 농가에서 어렵고 딱딱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육종과 개량에 대하여 이해하기 쉽게 예제를 들어가며 설명하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기록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기록이 제대로 되지 않고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육종가 평가와 같은 전문성을 요하는 것은 전문가의 몫이며 농가에게 요구하는 바가 아니기에 개량과 육종에 대하여 거부감을 갖지 않기를 바라며 오로지 기록에 충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날 교육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한우농가 관리프로그램 사용자 설명서 안내는 프로그램 개발자인 기획전산팀의 유성필 팀원이 설명하였다.

개발자는 실제 컴퓨터나 전산이니 하면 농가가 거부감을 가질 수 있어 농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유성필 개발자의 교육

수 있도록 실제 농가의 검증시험을 밝아가며 프로그램을 개발에 하였다며 평상시 일기 메모형식처럼 접근하기 쉽도록 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니 처음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한두 번만 기록하다보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적응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협회에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설명서를 제작하여 CD프로그램과 함께 보급하고 언제든지 농가에서 교육을 희망하면 소그룹 단위로 직접 교육할 방침을 가지고 있으며 11월중 한 차례 더 집중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이날 김상준 한우핵군육종연구회장이 “한우인의 자세”란 주제를 통해 한우산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며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자신있게 도전하는 한우농가가 되어 주길 바랐다.

또 김윤식 한우개량부장은 “번식우개량을 위한 계획교배 방법”이란 주제를 통해 농가의 기록이 왜 중요하며 어떠한 방법과 기술을 가지고 계획교배를 실시해야 하는지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다.



김상준 회장의 교육



김윤식 부장의 교육